

아주대의료원소식

2003

6

통권 제 101호 / 발행일 2003. 6. 1 / 발행인 겸 편집인 姜信榮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442-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특별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 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나의 현명한 선택, 소아내분비
- 5 선인재 컬럼
쉬운 의학용어를 써 보세요
- 6 진료교실
여러분 입속, 행복하십니까?
- 8 의학 리포트
자궁내 폴립 발견되면
복강경 검사해야
- 9 음식 속 건강
찾았을 이용한 별미
- 10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껴요
- 12 인체탐방 당뇨병 이야기
- 16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이식대기자의 새로운 희망과 선택
- 17 AMC NEWS
- 22 건강 Q&A
-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부작용
- 24 스포츠의학
발 모양과 신발
- 25 잘못된 건강상식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괜찮지요?
- 26 협력병원 탐방 오산서울병원
- 27 유명인과 질병 르느와르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5월 의미있는 두 개의 심포지움을 가졌습니다.

매년 아주대의료원 의학유전학과와 한국희귀질환연맹이 개최하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심포지움」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이비인후과학교실에서 개최한 아주이(耳)과 심포지움입니다.

희귀질환 DB 구축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주제로 열린 희귀질환 심포지움은 전국에서 올라 온 많은 희귀질환자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했으며, 아주이(耳)과 심포지움은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인공와우이식술의 최신지견을 나누며 난청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단지, 환자들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며, 새로운 치료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아주대의료원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최근 대한병원협회의 보고에서 5개년간 의료기관의 도산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1998년도에 3.7%에서 2000년도에 7.4%, 2001년도에 8.9%이며 지난 해인 2002년도에는 9.5%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병원 중에 93개 병원이 도산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의 감소와 인건비가 상승되어 2001년에 비해 의료수익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커서 도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보고에서도 최근의 병원의 위기는 첫째 경영의 위기로서 수입과 지출의 평형이 깨짐으로써 적자가 누적되거나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은 재정위기와 운영의 위기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기능의 위기이다. 병원은 첨단 기술,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데 의료수가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존립의 가치를 변질하면서 기능 장애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셋째는 정부의 병원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정책위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규제가 일관되고 육성책이 없었으며 특히 2002년도에 의료수가를 2.9% 인하한 정책은 많은 병원들이 경영난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02년도를 「재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목표를 정하고 전 교직원이 노력한 결과로 2002년도 병원결산서에서 재정적인 흑자를 기록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오명 총장의 부임과 함께 강신영 의료원장, 김영수 학장 및 소의영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자의 안정된 지도체계를 갖추었으며 대우학원과 대학, 병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상호 협조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2년을 「재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첫째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개원 9년째를 맞아 노후화된 장비와 최근 신 장비의 도입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미루어 왔었던 것을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50억원의 외부차입으로 노후화된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신 CT촬영기

를 금년 6월에 설치할 예정이며 2003년도에도 노후와 장비는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PET-CT 촬영기도 도입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임상교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 12월부터 시작하여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향후 미비점을 보완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는 병원 조직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작년 제 2진료부원장 제도를 도입하여 제 1진료부원장은 진료부인 임상 각과를 맡아 책임지게 하였으며 제 2진료부원장은 임상지원과를 맡아 임상과의 진료를 지원토록 하여 업무를 분할하였고 행정부원장으로 하여금 각 행정팀을 장악하여 원활한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앞으로 병원장의 업무중에서 각 부원장들에 책임을 이전하여 행정체계의 간소화와 신속하게 처리토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팀장들의 인사로 각 부서에 맞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사복지팀을 신설하여 총무인사팀에서 분리하여 모든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두어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였으며 노사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대화의 창구를 맡아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과감히 투자하여 앞으로는 과업이 없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는 아주대학교병원이 경기남부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도록 추진하였다. 2002년도에 약 60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가졌으며 금년까지 약 65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협력관계는 환자의 진료 및 이송과 교육, 행정지원 및 경영진단 등 지역사회의 병원들과 협력하여 의료계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원시와 경기도의 모든 행사에 지원과 의료협동을 하고 있다. 광고산 환경보호 운동, 당뇨병 걷기 행사, 경기일보의 경기도 마라톤대회 및 무의촌 진료와 이탁에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의료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최근에 들어 커다란 폭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낙오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vision을 실현시켜 갈 시점이다. 2004년이면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아주대학교의 비전은 World class University다. 이에 속한 우리 병원도 향후 10년 후에 World class University Hospital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쟁하고 경영이 어려울수록 조직체가 단합하여 전 교직원이 기관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참여의식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우리의 vision을 실현시킬 수 있다. 다행히 의료환경은 어렵지만 우리의 주변 환경은 계속적인 향상되어 왔다. 영통과 영덕지구가 생겼으며 수지지구가 개발되었다. 수원인 인구는 100만명을 넘었다. 또한 2009년까지 이의동 일대의 337만평에 1만 8600가구의 5만 4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신도시가 건설된다. 2008년에 완공될 신분당선이 수지를 거쳐 이의동과 수원역을 연장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은 우리의 주변환경이 향상될 수 있어 우리의 병원에 희망을 주고 있다.

다시 병원장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맡은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양적인 성장 보다는 생산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전환
- 질 중심의 의료 제공
- 생산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소비자 관점의 서비스로 전환
- 조직내의 의사결정 및 정책의 민주성, 합리성 및 투명성 향상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병원, 우리 나라의 우수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
- 우수인력의 양성과 임상 연구의 활성화

첫째 우리의 병원은 1033병상으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병상은 오픈한 상태이다. 양적인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정책보다는 생산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의 생산성은 수도권 대학병원 중에 중상위권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특수 진료센터의 활성화, 타의료기관과의 협력강화 및 병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센터를 좀더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득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센터보다는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능상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각 임상과는 자신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선하고 개혁하면서 기관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직원들도 임상과 교수들이 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원하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성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별관의 층측이 끝나면 일부 진료과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05년 의료개방이 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는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질 중심의 의료 제공되어야 한다. 2001년도에 약 12억원의 의료분쟁 손실을 보았으나 2002년도는 임상교수 및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약 1억원 미만의 손실이 있었다. 앞으로는 cost of poor quality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임상과 및 행정 모든 부문에서 질 중심의 QI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개선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간다면 아주대학교병원이 세계화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생산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소비자 관점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 즉 「인간존중」의 병원으로 전환되었으나 단순히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환자 중심의 경영은 조직원의 표준화된 업무수행, 조직성과의 평가기준 및 제도

의 유연한 적용으로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만족하다는 넓은 의미인 것이다. 금년 우리 병원은 11월에 실시하는 의료서비스평가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직원 전부가 이에 협조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부족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

넷째는 조직내의 의사결정 및 정책의 민주성, 합리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가급적 공개적이며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향후 10개년 계획도 교직원 전체가 참여하여 우리의 모습을 계획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경기도 남부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우수한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 전체 교직원이 지역사회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협력병원들과 협력하므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병원이 되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로 우수인력의 양성과 임상 연구의 활성화. 인성을 갖추고 능력 있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사들을 양성하여 우리의 지역사회에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조건을 개선하도록 연구자원을 집중화하도록 하겠다. 현재 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좋은 지원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급변하는 어려운 의료환경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 제 2의 도약을 하고자 하는 아주대학교병원은 「결과 효율」이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대학병원이 될 수 있다. 지난 9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올 우리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한다면 경기남부의 우뚝 선 대학병원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최고의 병원이 되고 그 후 World Class University Hospital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전교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의료발전에 적응하고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하여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9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의료계의 선두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기 위한 globalization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창호 병원장

나의 현명한 선택, 소아내분비



『키가 나이에 비해 작아요.』
 나의 외래 방에 들어오면서 아이의 어머니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아이들의 엄마로부터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들은 「여자애의 가슴이 나왔어요, 「애가 똥똥해요」 등이다. 전공분야가 소아내분비인 나는 이런 말들을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듣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저신장증, 성조숙증, 소아 비만 외에도 소아 당뇨병, 소아갑상선질환, 선천성기형질환, 유전대사질환 등이 소아내분비에서 전문으로 하는 질환들이다.

실제로 소아내분비를 전공하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선택한 것은 아직까지 생소한 학문으로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과 항상 제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 환자들 또한 성심 성의껏 보시는 은사하신 서울대학교병원 양세원 교수님의 인품에 대한 감화가 가장 큰 이유였다. 소아내분비를 전공한 지 7년여가 된 지금도 환자 보는 것이 재미있고 기다려지는 것으로 보아 이 분야를 선택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 키가 반에서 1, 2번인 여자 아이들은 꼭 진료를 받기를 권장하고 싶다. ”

외래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이다. 특히 3주전에 내원한 9세 남이는 성기와 음모가 이미 성인 수준에 이르렀는데 성장판 검사 결과 이미 닫혀있는 경우로 키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나로서도 정말 안타깝다.

또, 요즘 사춘기가 빨라짐으로 인하여 여자 애들의 가슴과 초경이 정상보다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 8세 이전에 젖가슴이 들출될 경우는 성조숙증일 수가 있으므로 빨리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데리고 옴으로써 최종 성인 키도 손해를 보고 의료보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넘김으로써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게 될 때에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키가 반에서 1번 또는 2번인 여자 아이들 또한 꼭 진료를 받기를 권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자아이에서만 발생하는 터너증후군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조기 치료할 경우에는 최종 성인 키를 적어도 4~5cm 정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키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여 저신장증으로 고민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황진순 교수 / 소아과학교실

쉬운 의학용어를 써 보세요



정민석 주임교수 / 해부학교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는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 이것은 의학용어가 어려운 일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서혜부위에서 촉진되는 연종괴가 탈장으로 의심됩니다. 외과로 전과해서 오퍼레이션하겠습니다. 무조건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들었나? 사타구니에서 만져지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창자 같습니다. 외과로 옮겨서 수술하겠습니다.

이것은 새 의학용어가 쉬운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쉬운 의학용어를 만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무척 애썼으며, 많은 의사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로 2001년에 새 의학용어집을 펴냈다. (kamje.or.kr/term)

환자는 쉽게 알아듣는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깨관절, 팔꿈관절. 이번만 설명해도... 집현전 학자처럼... 이를 위해서 가장 기초인 해부학 용어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쉬운 의학용어를 쓰면, 환자와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모범을 보여 주세요. 설명도 쉽고, 얼굴도 예뻐서 좋아요. 이처럼 전문가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쉬운 것이 좋은 것이여. 얼썬!

내과 용어, 외과 용어, 해부학 용어. 해부학 만화를 보면서 공부하세요. (anatomy.co.kr)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러분 입속, 행복하십니까?

치아의 건강은 장수의 필수조건

우리 나라는 2000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여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7.3%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 나라 65세 이상 74세까지의 노인의 경우 의치 장착율은 38.5%, 의치 필요자율은 40.2%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0% 가량이 의치에 의존할 만큼 치아를 일찍 상실한다는 조사를 접하고 보면, 길어진 인간 수명이 삶의 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치아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잘 혼합시켜 위장으로 역할을 넘기는 소화기관의 관문인데, 치아가 부실하면 편식의 원인이 되고, 음식을 잘게 만들지 못하여 위에 부담을 주게 된다. 결국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저항능력이 떨어져서,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어 건강을 잃기 쉽게 된다. 결국 치아의 건강은 장수를 위한 필요 조건이고, 오복 중 하나인 것이다.

20세 전의 치아관리가 노년의 치아건강을 좌우

일반인들은 대부분은 수명이 다해서(노화현상으로) 치아가 빠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유치는 영구치와 교환할 시기까지만 사용하면 되지만, 영구치는 이를 그대로 우리 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해야 할 치아이다. 따라서 조기에 치아를 잃게 되는 것은 질환에 의한 것이며,



대개는 예방과 조기치료에 의해 방지할 수 있다.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와 잇몸질환이다.

충치는 관절염, 고혈압과 함께 3대 만성질환(2000.11.1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2)으로 유소년기에 잘 생기지만, 20세 이후에는 새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나이가 들어 충치로 고생하는 것은 20세 이전에 생겼던 충치가 진행을 멈추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원인에 의해 악화되는 것이다.

충치·풍치의 원인은 입 속 세균

충치는 입안에 있던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면서 만들어 낸 산에 의해 치아가 녹아 내려가 생기는 질병으로, 방지하는 경우 치수에 염증을 야기하여 통증을 일으키고, 치아를 잃는 원인이 된다. 이렇듯 충치는 어렸을 적에 극심한 통증에 의한 고통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치과질환 중 충치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40세 이후에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의 70%는 잇몸질환(풍치)에 의한 것이다.

풍치는 치료가 어렵고 일단 걸리면 진행이 빠른 귀찮은 병이다. 증상은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와 구취가 나게 되고, 더 진행하면 치아가 흔들려 빠지게 된다. 풍치는 충치와 마찬가지로 구강내 세균이 원인인데, 당분을 분해하면서 끈적끈적한 띠(치태)를 만들고 여기에 칼슘이 침착하면 치석이 되어, 몸과 치아 사이로 파고 내려가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근막, 치조골, 백악질을 녹여 치아를 빠지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치아관리의 명약은 올바른 잇솔질

충치나 풍치는 일단 발병하면, 흔적없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충치나 풍치는 구강 내 세균이 원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잇솔질(그림 1)에 의한 구강 내 세균 수의 감

소가 가장 바람직한 예방법이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잇솔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치가 잘 생기는 치아의 오목한 부분을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거나 <치면열구전색, 그림 2>, 불소를 발라주어 치아를 단단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치아건강식품협회(Toothfriendly Sweets International)에서는 충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제품에 대해 치아건강식품마크(Toothfriendly Mark, 그림 3)를 제품의 포장지에 붙여 주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간식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적인 치과검진 철저한 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잇솔질

풍치는 철저한 잇솔질과 함께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수적이다. 일단 치석이 생기면 잇솔질로는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초음파의 미세한 진동을 이용하여 떼어 내어야 한다. 풍치의 초기에는 스케일링 만으로도 잇몸의 건강이 쉽게 회복된다. 그러나 풍치가 진행되어 잇몸 깊숙이 치석이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치근면활택술 등을 이용한 잇몸 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후에도 일단 소실된 치조골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치료가 절실하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수적이다. 흡연이나 음주, 잦은 간식과 같은 치아 건강에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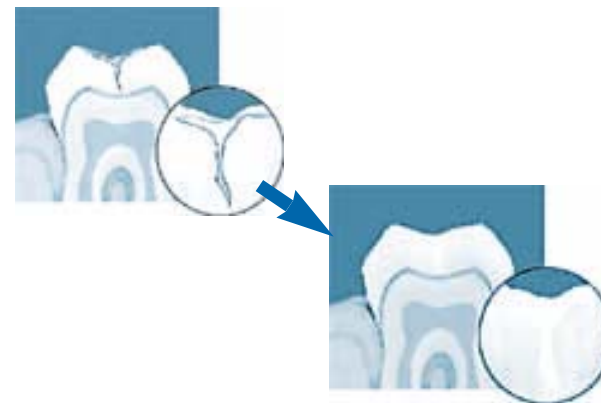
가정에서는 올바른 잇솔질에 의한 구강 위생의 철저,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만이 치아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으며, 신체 건강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싶다.

고 석 민 교수 / 치과학교실

<그림 1> 올바른 잇솔질 방법

- 1 칫솔의 옆면을 잇몸에 대고 누르면서 손잡이를 축으로 하여 위턱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고, 아래턱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회전시킨다.
- 2 안쪽과 바깥쪽은 잇몸에서 치아쪽으로 칫솔을 돌리면서 닦는다.
- 3 앞니의 바깥쪽은 잇몸에서 치아쪽으로 돌리며 닦는다.
- 4 앞니의 안쪽은 칫솔을 앞으로 비스듬히 세워 입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며 닦고, 씹는 면은 뒤로 문질러 닦는다.

<그림 2> 치면열구전색



치면열구전색(실란트)이란 충치가 잘 생기는 치아의 홈을 막아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하므로써 충치를 예방한다.

<그림 3> 치아건강식품마크



대한구강보건협회 산하 치아건강식품위원회에서는 자녀들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튼튼이 마크가 붙은 제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궁내 폴립 발견되면 복강경 검사해야

이유 없는 질출혈의 원인인 자궁 내 폴립(용종)이 발견되면 자궁내막 증을 의심하여 복강경 검사를 해 봐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불임팀 황경주, 김미란 교수는 질출혈을 이유로 내원한 182명의 환자를 검사해 본 결과 58명의 환자에서 자궁 내 폴립이 발견되었고, 58명 중 43명(74%)의 환자에서 자궁 내 폴립과 자궁내막증이 동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세계 최초로 미국 부인과내시경학회지에 보고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질출혈을 호소한 182명에 대한 복강경 검사 결과, 자궁내 폴립이 없는 124명 환자 중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는 49명(39.5%)이었으나, 자궁내 폴립이 있는 58명은 폴립이 없는 환자의 2배인 43명(74%)에서 자궁내막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궁 내 폴립과 자궁내막증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김미란 교수는 『자궁내막증(자궁내막 이외의 장소, 특히 골반강 내에서 자궁내막 조직이 증식하는 질환)이 자궁내막 자체의 증식과 자궁 내 폴립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자궁내막증의 주증상은 생리통, 골반통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이나 생리통, 골반통이 대부분의 여성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니 만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질병이다.

이에 자궁 내 폴립이 있을 경우 복강경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증을 진단해야 한다는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불임팀의 연구결과는 폴립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함으로써 질출혈과 생리통, 불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자궁내막증의 보다 빠른 진단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란 교수는 『생리기간 외 질출혈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에게서 자궁 내 폴립이 발견되면 자궁경이나 소파수술을 통해 폴립을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복강경 검사를 병행하여 자궁내막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지난 5월27일 KBS 뉴스광장, 930 뉴스와 5월24일 YTN 뉴스, 5월23일 i-TV 뉴스에 방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차잎을 이용한 별미 차국수와 찻잎 땅콩조림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요리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박중숙 요리 선생님으로부터 차잎을 이용한 별미를 배워 본다.

차에는 옛사람들이 그 효능에 대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을 만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비함이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의보감」에도 「녹차는 양생의 선약」이라 했으며, 「전혀 부작용이 없고 혈압을 내리고, 소화를 도우며, 이뇨작용, 잠을 적게 하며, 가래를 삭이고, 갈증을 없애며, 배속을 편안하게 하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기운이 상쾌해지고, 술을 깨게 하며, 식중독을 풀어주며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기생충을 없애준다」고 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 것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러한 차의 약리적 효능이 과학적 실험에 의해 증명됨으로써 녹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는 다른 어떤 음료보다도 긴장과 피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녹차에 있는 여러 성분의 작용으로 폐암을 비롯한 암 발생을 크게 억제 시켜준다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녹차를 이용한 시원한 차국수는 더위를 식혀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 주는 동시에 여러 가지 비타민도 들어 있어 더운 여름철 더할 나위 없는 건강식이 될 것이다.



차국수

재료

국수 밀반죽 : 밀가루 3컵, 찻가루 1큰술, 소금 약간, 뜨거운 물
국물 : 물 2.8l, 마늘 50g, 다시마 60g, 통후추 1작은술, 다시마 20g, 양파 50g, 건고추 3개, 미향 1/4컵, 저민 생강 10g, 맑은 조선간장 약간, 소금 약간

고명 : 찻잎 1컵(소금 1/2 작은술, 들기름 1/2 큰술, 깨소금 1작은술)

만들기

- 1 분량의 재료를 합하여 장국물을 끓이는 데 간장은 국물 색깔을 보고 넣어 소금으로 간 한다.
- 2 차를 마시고 남은 찻잎은 잘 말려 두었다가 다시 불려 물기를 꼭 짰 후 분량의 양념으로 무쳐 고명으로 사용한다.
- 3 차를 마시고 말려 둔 찻잎을 곱게 갈아 밀가루에 섞은 후 뜨거운 물로 익반죽해서 칼국수를 밀어 놓는다.
- 4 끓는 물에 삶아 깨끗이 씻어 건져 분량의 국물을 부어 위에 차 나물 고명을 얹어 낸다.

찻잎 땅콩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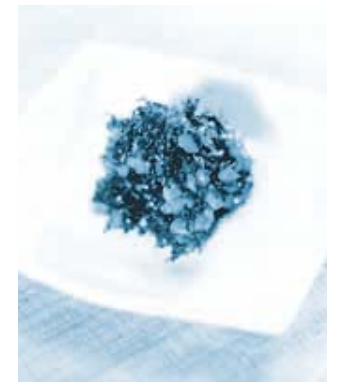
재료

찻잎 50g, 부순 땅콩 3큰술, 고추장 2큰술, 꿀 2큰술

만들기

- 1 찻잎은 망에 걸러 찻잎기를 털어내어 준비한다.
- 2 땅콩은 껍질을 벗겨 대강 쪄서 찻잎을 걸러 놓는다.
- 3 달군 팬에 고추장과 꿀을 넣고 녹여 섞은 후 불에서 내려 찻잎과 땅콩을 넣어 버무려 낸다.

* 찻잎은 차를 한 번 우려내고 말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에는 카페인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우려내지 않은 찻잎을 사용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되어 불면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중 숙 원장 / 박중숙 손맛 작업실



아주대학교병원 영양연구회에서 콩, 된장, 두부, 차의 종류와 효능, 아체류와 비타민, 김치와 젓갈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 속 건강」을 연재합니다. 영양연구회는 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아주대대 교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주임교수를 주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아주대학교병원은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여러 명의 SARS 의심환자가 거쳐갔다. 그 중 한 명이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최영화 교수 앞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와 게재한다.

병원생활 동안 고마움을 듬뿍 느꼈던 선생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선물을 드리자니 쑥스러워서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나의 병원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북경에서는 SARS의 공포로 유학생들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4월19일 귀국길에 올랐다.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자 비로소 안심이 되어 편안한 내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입국한지 이틀째 되던 날 오후 6시부터 갑자기 몸이 춥고 떨리면서 뼈마디가 아프기 시작했다. 체온을 재어 보니 39도였다. 7시쯤에 어머니가 퇴근해서 누워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시며 재빠르고 신속하게 마스크를 씌우고 어머니도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곧바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차 속에서 어머니는 침착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SARS가 아닐 가능성은 높지만, SARS든 아니든 난 위험지역에서 왔고 잠복기간에 해당된다. 응급실에 가지마자 격리 조치될지도 모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계속 당부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격리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갔다. 엄마도 없는 혼자만의 병실에서 면회도 전혀 안되는 생활이 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불안해 하거나 무서워 하지 말라는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드디어 응급실에 도착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엄마, 나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지마.』하며 철없이 보냈지만 엄마는 야속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셨고, 엄마의 말씀처럼 나는 곧바로 격리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 혼자만 아닌 어머니와 함께 격리실로 옮겨졌다. 함께 차를 타고 왔다는 이유였다.



의료진들의 신속하고 친절함 배려속에서 나는 검사에 필요한 피를 뽑고 링겔을 꽂았다. 밤늦은 시간에 호흡기내과 최영화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아주 포근한 목소리로 나를 안심 시키시며 진찰을 해주셨다.

『선해야, 격리실로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와 엄마에게 특수 마스크를 손수 바꿔 씌워주시며 너무 걱정 말고 위로해 주셨다.

SARS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0.1%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 모두 힘들게라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방독면을 착용하시고 세겜의 가운을 입으시고 방독면 위로 특수캡까지 쓰신 무겁고도 둔탁해 보이는 가면 사이로 흘러나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아주 편안하고 다정하게 날 안심시켜주셨다. 그렇게 하루

선생님께서서는 입원 5일째 되던 날 드디어 퇴원 지시를 내리셨다. 얼마나 반갑던지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았다. 결과는 물론 SARS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과가 나올때까지 절대 외출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해』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날의 행복함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풍선을 타고 공중위로 떠오르는듯하고 가슴터지는 행복감이었다.



가 지나고 있었다. 하루 두차례의 회진이 매일 매일 이루어졌다. 철저한 소독과 겹겹의 안전에 필요한 가운과 방독면 신발 위로 덮어 씌운 덧신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가지도 소홀하게 대충 준비하신 모습을 5일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

입원한 지 3일이 지나면서 열도 내리고 컨디션도 아주 좋아졌다. 나는 비로소 선생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첫날 격리실로 옮겨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16살 나이가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냉정하고 야속하게 들려왔는지 나도 모르게 붉은 눈물만이 계속 흘러내렸다. 고압 가스실에서 몇 시간 대기하는 동안 「선생님 미워미워」를 계속했다.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 이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입원 5일째 되던 날 드디어 퇴원 지시를 내리셨다. 얼마나 반갑던지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았다. 결과는 물론 SARS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과가 나올때까지 절대 외출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해』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날의 행복함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풍선을 타고 공중위로 떠오르는듯 하고 가슴터지는 행복감이었다.

퇴원준비를 지시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끝까지 단호하고 철저하셨다. 병실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병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옷으로 갈아 입고 모든 걸 놓고 나왔다. 퇴원 후 다 소각처리 된다고 하셨다. 『아깝게 그걸 왜태워!! 난 SARS도 아닌데!!』하며 투덜거리다가 0.1%의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조심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빙그레 웃었다. 엄마도 내 마음을 아시는지 같이 웃어 주셨다. 퇴원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내과 외래로 마지막 검사결과를 보기위해 내원했다. 진찰대에 들어서서 순간 선생님과 나는 서로 웃었다.

선생님께서 먼저 『어머, 선해가 이렇게 생겼구나. 마스크 속의 숨겨진 너의 모습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애~♡』 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고, 『선생님 저도 그랬어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하하호호」 우리는 마치 그 동안의 비밀주머니를 풀듯 한참을 이야기했다. 『검사결과는 아주 좋아. 오늘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야.』 하시며 재밌게 말씀하셨다. 그 동안 내 머리속에 그려왔던 강한 색깔의 의사 선생님과 또다른 색깔의 파스텔빛 부드러움으로 다시 가슴 깊숙히 그림을 그려넣어 주셨다. 그날 오후부터 선생님의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다시 바쁜 선해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선생님을 힘들게 헤드렸던 선해 올림.

당뇨병 이야기

합병증이 더 무섭다는 당뇨병. 당뇨병은 고혈압, 비만과 함께 가장 흔한 성인병의 하나이다. 이번 인체탐방에서는 당뇨병의 치료에 대해서 내분비대사 내과 이관우 주임교수로부터, 당뇨병 합병증에 하나인 말초신경병증에 대해 신경과 주임수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당뇨병이란?

당뇨병이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높아져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이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소변을 자주 많이 보고(多尿), 물을 많이 마시고(多飲), 음식을 많이 먹으며(多食),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밖에 피로, 감염증, 가려움증, 신경통, 시력 장애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고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의 종류

당뇨병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 1형 당뇨병은 주로 30대 이전에 발병하고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며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다. 따라서, 정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평생 동안 맞아야 한다. 반면에 2형 당뇨병은 보통 40세 이후에 발병하고 당뇨병의 증상이 서서히 시작된다.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 경구 혈당강하제로 혈당을 조절하지만, 혈당조절을 잘 하기 위해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표 1).

당뇨병의 치료

당뇨병의 치료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생활요법 등이 있다.

식사요법

기본목표는 건강한 상태를 얻기 위해 식후 고혈당의 완화, 인슐린 사용시 저혈당 방지, 체중조절, 동맥경화증 발생

〈표 1〉 당뇨병의 종류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 유아기나 청년기에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 반드시 인슐린 요법이 필요하다. • 케톤성 혼수가 발생하기 쉽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슐린 분비 능력은 좋은 편이다. •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2차성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질환이나 특정증후군의 부분 현상으로 나타나는 당뇨병이다. • 원인으로는 췌장질환 및 췌장제거, 내분비질환, 고혈당을 유발하는 약물(부신피질 호르몬제, 티아지드계 이뇨제 등) 사용, 간질환 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중에 발생하는 당뇨병이다. •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

의 예방 내지는 지연을 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야 하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 ◆ 혈당치를 가능한 정상범위로 유지한다.
- ◆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한다.
- ◆ 식사조절은 가능한 환자의 구미에 맞도록 준비한다.
- ◆ 환자의 경제사정에 맞는 식사계획을 짚는다.

운동요법

운동요법은 식사요법에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다는 의미와 반대로 섭취된 칼로리를 소비한다는 뜻으로, 식사요법과 더불어 당뇨병 조절에 중요한 기본이 된다. 특히 육체적인 운동은 인슐린에 대한 말초조직의 감수성을 높여 당 이용률을 증가시

키며, 혈액 응고를 억제하여 뇌와 관상동맥 혈전증을 예방함으로써,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생활요법

일상 생활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당뇨병의 관리 목표

신체적 안정 + 심리적 안정 = 안정된 생활 (혈당조절 → 합병증 예방)

당뇨병의 관리 목표는 효과적인 혈당조절과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심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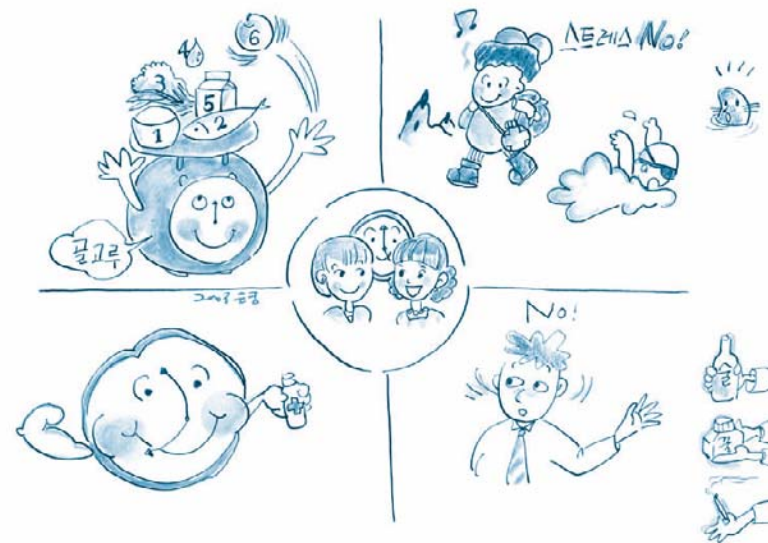
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있다.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혈당관리를 위한 비합리적인 자기관리 노력이 생활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당뇨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직면하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운동, 금연, 금주, 스트레스 해소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오래된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일상생활 속에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원칙을 세우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있다.

일반적으로 공복시 혈당이 200mg/dL를 넘지 않는 심하지 않은 당뇨병의 경우,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먼저 실시하고 이러한 방법들로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200mg/dL를 넘는 고혈당의 경우 우선 인슐린요법으로 혈당 조절을 한 후에 경구 혈당강하제를 사용한다.

설폰요소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인슐린 분비를 촉진



혈당관리의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당뇨병 환자의 생활 지침

- ▶ 규칙적으로 많이할 것 - 운동
- ▶ 절제할 것 - 음식
- ▶ 아니할 것 - 술, 담배
- ▶ 해소할 것 - 스트레스

약물요법

경구 혈당강하제란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먹는 약을 말하며 현재 설폰요소제, 비구아나이드제, 보글리보스, 아카보스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인슐린의 작용을 개선시켜주는 새로운 약제인 아반디아도 사용되고

하는 것이 주된 작용인 만큼 인슐린 분비가 거의 없어진 1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경구 혈당강하제가 「먹는 인슐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다. 경구 혈당강하제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인슐린처럼 직접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구아나이드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는 않으나 당 이용률 증가, 간에서 당 생성 억제, 소장에서 당 흡수 억제 등의 작용한다. 아카보스와 보글리보스는 당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한다.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2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체중조절이 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된다. 그러나 혈당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여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혈당조절이 잘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고도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1형 당뇨병 환자를 제외하고는, 인슐린을 반드시 마약처럼 끊지 못하고 평생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혈당조절이 잘 되면 식사요법, 운동요법, 경구 혈당강하제 등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당뇨병의 치료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당뇨병의 예방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병(감염), 큰 외상, 잦은 임신, 절제되지 못한 생활, 약물남용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겹쳐질 때 발병한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고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들 즉, 비만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하는 것, 약물남용을 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잘 해소함으로써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관 우 주임교수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하면 떠오르는 분

친구 어머니를 20여 년만에 뵈는 지도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간다. 의과대학 공부라는 것이 그렇듯이 혼자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스터디 그룹이란 것을 만들어 같이 공부한다. 마음 맞는 친구 여러 명이 모여 각자의 집에서 돌아가며 숙식을 하는데 이때 늘 고생하시는 분이 친구의 어머니들이다. 때마다 식사는 물론이고 밥참도 해 주시며 때론 늦잠을 자는 일이 있으면 친 자식처럼 엉덩이를 두드려 깨워주시기도 하셨다. 언제 봐어도 정다운 어머니님이셨다.

대학병원에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먼 길을 한달음에 오신 것이다. 벌써 당뇨병을 앓은 지 수십 년이 되었으니 말초신경병증이 생길만도 하셨지만 그 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지 몰랐다. 잠도 못 주무시고 웬만한 약도 효험이 없었다.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지만, 그 합병증은 아차처럼 늘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말초신경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전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약을 조절한 다음 퇴원하셨지만, 아직도 어머니는 그 합병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듯하다.

처럼 손, 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어떤 경우에는 고추가루를 뿌려놓은 듯이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매우 고통을 받는다. 초기에는 주로 양발에 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쪽 무릎까지 진행하고 두 손에도 침범된다. 손, 발에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감각이상으로 걸음걸이의 이상이나 발 등에 자주 상처를 입어 당뇨병성 궤양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안면신경이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신경과 같은 뇌신경에 이상을 초래하여 물체가 갑자기 두 개로 보이거나 안면마비를 유발한다. 또, 자율신경의 기능이상으로 심장질환이나 변비, 발한, 성기능 장애, 배뇨와 같은 일상생활에 매우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이상을 동반하여 생활에 적잖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때로는 한쪽 다리의 마비나 수근관 증후군과 같은 단일신경 장애를 보이는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실체이다.

당뇨병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합병증

그 어머니가 약 일년 전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지병인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외견상 건강한 모습이었다. 어머니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당뇨병의 합병증인 말초신경 이상으로 손, 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었다. 그래서 친구 아들이

고추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통증

당뇨병의 주된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은 이미 1800년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이 합병증은 단순히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운동감각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머니

당뇨병과 관련된 건강상식

Q 당뇨병을 낮게 하는 음식이 있다?

A 그렇지 않다. 당뇨병의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12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당뇨인들이 당뇨병을 완치시켜 보겠다는 마음과 쉽게 치료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민간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혈당조절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요법은 별 효과가 없거나 일부는 당뇨병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Q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단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A 단식은 우리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단식요법은 당뇨병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치료법이다.



Q 잡곡밥은 많이 먹어도 된다?

A 잡곡밥도 엄연히 열량을 내는 식품이므로 열량을 조절해야 하는 당뇨병 조절에는 어떤 종류의 밥이라도 처방 열량에 맞추어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잡곡은 쌀보다 섬유소가 많아 당뇨병 조절에 유리하다.

말초신경이란

말초신경은 전기질의 구조와 비슷하고 그 기능 또한 유사하다. 말초신경은 뇌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연결시켜 전기적으로 통제하거나 통제를 받는다. 전기질이 구리선과 피막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말초신경도 구리선에 해당하는 축삭과 피막에 해당하는 수초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혈관이 말초신경의 혈류를 담당하는데 당뇨병이 진행하여 이들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내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급기야 신경이 죽게 된다. 만약 축삭의 손상이 심하다면 증상이 매우 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다른 기전으로 혈액내 과다한 혈당으로 인해 대사 장애가 유발되어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에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말초신경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초기에 적극적인 혈당조절로 예방 가능

당뇨병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은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서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전에서 발병하는 2형 당뇨병인 경우, 50% 넘게 동반된다. 당뇨병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손, 발이 저려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당뇨병을 오래 앓을 수록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나이가 많거나, 혈당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과체중이나 고혈압, 신장이나 망막의 이상과 같은 다른 당뇨병성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더욱 잘 생길 수 있다.

「양날의 칼」과 같은 약물요법

진단은 증상과 신경전도 검사, 자율신경 검사, 정량적 감각 검사 및 피부조직 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치료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혈당조절, 그것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상 치료로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어느 하나 환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지 못한다. 약물로서 기존의 항경련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도 항우울제, 아편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약물들은 양날의 칼과 같이 모두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중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비법만 있다면, 친구 어머니의 고통을 깨끗이 없애드리고 비록 아들의 친구이지만 아들 잘 둔 보람을 느끼게 해드릴 수 있을텐데, 고작 「어머님, 당뇨병을 잘 치료하셔야 이 병도 나올 수 있습니다」란 상투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괜히 현대의학의 한계를 탓해본다.



주인수 교수 / 신경과학교실

Q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당뇨병에 나쁘다?

A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단백질 식품이며 단백질은 근육, 혈액 등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다. 칼로리 문제 외에 당뇨병의 식사요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당질, 지방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에 과부족이 없도록 영양소의 균형이 잡힌 식사여야 한다.

Q 당뇨병자는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A 우리 나라의 과일은 일반적으로 당질섭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하루에 사과 또는 귤 1~2개 정도는 가능하다.

Q 무가당 주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A 그렇지 않다. 무가당 주스 1잔(200ml)은 사과 1개(200g)에 해당하는 열량(100칼로리)을 낸다.

Q 설탕을 넣지 않으면 커피나 홍차는 많이 마셔도 된다?

A 커피, 홍차, 녹차 등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 면에서는 제한할 필요가 없지만, 이들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 및 교감신경계의 흥분작용에 의해 심장이나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나 홍차 한 두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Q 갈증이 나면 주스나 콜라를 마셔도 괜찮을까?

A 이들 음료의 제조에 쓰이는 설탕의 양은 매우 많다. 예를 들면 콜라 1병에 30g에 가까운 설탕이 들어 있다. 혈당이 더 올라가 소변량이 더욱 증가되어 탈수를 악화시키므로 목이 더 마르게 된다. 따라서 목이 마르면 청량음료보다 맹물이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 다함께 건강해지는 길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Organ Transplant

이식 대기자의 새로운 희망과 선택

뇌사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시 우선권을 가져

최근 우리 나라의 장기이식에 관한 제도가 개선되었다. 앞으로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뇌사 환자를 관리해 온 병원이 자체 등록 대기자 중 신장 이식 대상자 1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간장의 경우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지리적 근접도 항목을 추가해 접수 산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병원 선택에 따라 이식의 기회가 달라져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는 어느 병원을 통하여 장기이식을 위한 등록 대기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병원에 따른 이식의 기회가 균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뇌사자를 관리하는 병원에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므로,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 이식대기 등록을 하는가에 따라 이식의 기회는 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기자가 50명이면서 1년에 뇌사자가 20명이 발생하는 병원에 등록된 환자는 대기자 500명에 1년 뇌사자 10명 발생하는 병원에 등록된 환자보다 이식의 기회 확률이 20배나 높게 된다. 그러므로 환자는 어느 병원의 대기자가 몇 명인지, 뇌사자의 발생건수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등록 병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은 높은 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경기도 유일의 장기적출의료기관인 아주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지정한 경기도내 유일한 장기적출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적출한 장기의 이식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였다. 겸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뇌사자의 관리, 장기적출 이식을 모두 일괄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받고 있다. 이식대기자가 많지 않으면서 뇌사자의 장기제공 실적 많은 병원이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등록병원을 선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창권 교수 / 외과학교실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는 장기이식에 대한 정보코너로 이번 달부터 외과학교실 오창권 교수의 글이 연재됩니다.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S

의료원 ▶▶▶▶

아주사회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녹색장터 열어



용품, 주방용품, 도서류, 선물류, 양주류, 의류, 운동·레저용품 등의 신상품 혹은 중고품을 판매하는 녹색장터가 열렸다.

녹색장터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 물건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어 써도 무방한 정도의 중고물품을 기증하여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돕도록 기금에 적립하는 것이다.

아주사회사업기금은 5월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병원 북측 현관 앞에서 아주사회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녹색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교직원 및 외부에서 기증한 아동

아주사회사업기금은 매년 아주사회사업기금 마련을 한 바자회를 개최, 바자회 수익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재활에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원, 정기 소방훈련 실시



의료원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5월10일부터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의무기록팀을 시작으로, 세탁

실, 의과대학 선인재, 장례식장에서 실제 상황을 재연한 소방훈련을 실시했으며, 6월에는 병동, 별관 인턴숙소, 주차장, 연구실 등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원, 휴양시설 구입계획 확정

의료원은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미니엄) 구입계획을 확정했다. 구입방법은 단계별로 구입하되, 1단계로 2003년도에 10구좌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했을 경우 6월부터 교직원의 이용이 가능하다.

제1회 전국교직원블링대회서 9위, 원무팀 최성우

지난 5월11일 수원 그랜드블링장에서 스승의 날 기념으로 열린 제1회 전국 교직원 블링대회에서 원무팀 최성우 계장이 좋은 성적을 거둬 화제를 모았다. 최성우 계장은 이날 전국에서 모인 110명 참가자(본원은 11명 참가) 가운데 에버리지 202점(3게임)으로 9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월간블링저널 6월호에는 10위안에 든 시강자 자격으로 최성우 계장의 인터뷰가 게재될 예정이다.

아주대의료원소식 100호 기념 소연 및 특별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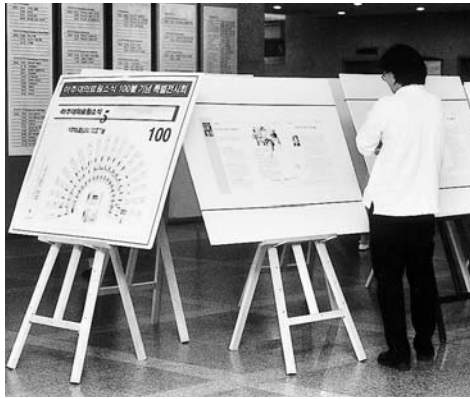
의료원은 지난 5월12일 오후 5시 병원 대회의실에서 강신영 의료원장을 위시한 교직원들과 연기자 심양홍님과 만화가 허영만 화가 등의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의료원소식 100호 발간을 기념하는 소연을 개최했다. 이날 소연에서 강신영 의료원장과 홍창호 병원장, 소의영 기획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100호를 발간하기까지 무던히 노력해 온 홍보팀의 노고에 감사하고, 아주대의료원소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아주대의료원소식은 94년 11월 창간된



이래 IMF 시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발간되지 못한 단 한권을 제외하고 꾸준히 발간되어 왔다.

또한 홍보팀은 100호 발간을 기념하여 5월말까지 3주 동안 병원 1층 로비에서



▲ 병원 24시 ▲ 수술실 사람들 ▲ 중환자실 ▲ 아주대의료원 사람들 등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식지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의과대학 >>>>

의학부 4명, 실습기간 동안 선진의학탐방 위해 미국행



▲ 좌로부터 나현욱, 윤정환, 송윤희, 정유리 학생

의과대학은 4주간의 자율선택실습기간과 4주간의 지역사회의학실습기간을 해외 선진의학 탐방으로 선택한 의학부생들 중 성적과 언어능력 등을 고려해 4명을 선발, 왕복 항공료를 지원했으며, 이들은 오는 6월18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의학부 나현욱(6년), 정유리(6년) 학생은 오명 총장의 석좌가 개설된 계기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스토니브룩대학에서, 의학부 윤정환(6년), 송윤희(6년) 학생은 플로리다대에서 8주간 실습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스토니부룩대학 측에서는 2명의 교환학생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올 예정이다.

인문사회의학교실에 교원 7명 중속배속

아주대학교는 피부과학교실 이성낙 석좌교수, 정신과학교실 임기영 부교수, 응급의학과교실 정윤석 조교수, 정신과학교실 이영문 부교수, 가정의학과교실 김범택 전임강사, 호흡기내과학교실 신승수 전임강사를 인문사회의학교실에 중속배속시켰다. 근무기간은 2003년 5월1일부터 2005년 4월30일까지 2년이다.

Cochlear社로부터 연구비 수혜

—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성균 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성균 교수가 호주 인공와우체 조업체인 Cochlear社로부터 HINT(문장청력검사도구) 한국어 버전 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A\$12,000를 지원받게 됐다.

도·서·기·중

■진단검사의학과 교실 이위교 주임교수가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외 4권의 도서를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피부과학교실에서 「최신 갱년기 관리」외 23권의 도서를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연구소 >>>>

뇌질환연구센터, 제5회 아주브레인컨퍼런스 개최



뇌질환연구센터는 지난 5월9일부터 10일까지 에버랜드 흥브리지 힐사이드 호텔에서 「From Stem Cell to neurons」라는 주제로 제5회 아주브레인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Keynote address : Recent advances in stem cell research(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소장) ▲ Identification of a potential nurr1 response element that activates the human tyroxylase gene promoter(뇌질환연구센터 이명애 교수) ▲ Reelin-dab1 signaling in neuronal differentiation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 ▲ Transdifferenti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 using bHLH transcription factors (해부학교실 서해영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이화여대 서주영 교수, 서울대 박용양 교수 외 5명의 발표가 있었다.

병원 >>>>

경기일보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 홍창호 병원장



홍창호 병원장은 5월23일 금요일 경기일보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4월20일 열린 경기마라톤대회에 의무단을 파견한데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것이다.

외국인 진료소 신설

병원은 원활한 외국인 진료를 위해 외국인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순환기내과학교실 최병일 교수를 지난 5월1일부로 소장에 임명했다.

4월 모범교직원 선정 — 이형숙 레지던트

병원은 2003년 4월 모범 교직원내 내과 이형숙 레지던트를 선정했다.

총 206표 중 36표를 얻어 18.4%의 득표율을 보인 이형숙 레지던트는 친절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며 성실하고 분별력 있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암 환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유방클리닉, 치료방사선과, 종양혈액내과는 오는 5월27일 화요일 오후 2시 별관 대강당에서 「암환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물사랑 이야기(물사랑 모임 대표이사 나기환) ▲ 피부건강에 대하여 (피부과 이은소 주임교수)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 구급실무교육 실시

병원은 유관기관의 협조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9일부터 16일까지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구급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응급의학과교실 정윤석 교수가 전정성질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법 등의 이론교육과 기도삽관, 후두마스크 사용법 등의 실기교육을 실시했다.

마음이 담긴 정성
고객감동의 병원

전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대상 석고부목 고정술 워크숍 열어 -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는 4월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응급의료센터 내 회의실에서 전국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석고부목 고정술 워크숍 (Splinting hands on Workshop)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센터에서 흔히 시행하는 슬기인 석고부목 고정술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와 부위별 실습을 통해 1차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연 캠페인 행사 가져

병원은 교직원 및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금연 캠페인에서 ▲ 스티커, 현수막 등 금연 홍보물 부착 ▲ 흡연구역 재 조정 ▲ 금연 시청각 교육 ▲ 흡연 피해 사진전시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특강 개최

간호부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5월12일

월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별관 대강당에서 서울 아산병원 이영선 간호팀장이 「간호사의 경력개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2003년 프리셉터 임명식 개최

병원은 지난 4월23일 별관 5층 회의실에서 2003학년도 간호부 preceptor 임명식을 개최했다.

올해 preceptor로 임명된 권현정 간호사를 비롯한 22명의 간호사는 지난 4월9일부터 3주간에 걸쳐 ▲ 신규간호사의 역할 전이 ▲



Assessment Skill ▲ Standardized Patient & PBL ▲ 간호기록 ▲ 기본간호술의 표준 등 총 24시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식에 홍창호 병원장은 「preceptor의 역할은 조직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앞으로 신규간호사 교육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병원은 관할구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직원 및 내원객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아병동, 어린이날 기념 그림잔치 열어



소아병동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그림잔치를 열고, 지난 5월2일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그림잔치에서는 ▲ 튼튼상 : 김경환 어린이 ▲ 해바라기상 : 김세빈 어린이 ▲ 꿈나무상 : 이영재 어린이 ▲ 세계로상 : 이소정 어린이 ▲ 빛나라상 : 장희정 어린이 ▲ 새싹상 : 진단비 어린이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소아병동은 모든 환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선사하고, 풍선 이벤트를 마련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온누리회, 봄맞이 야유회 가져



소아암 부모 모임인 「온누리회」는 지난 5월8일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 내 수목원에서 정기 야유회를 가졌다.

온누리회는 매년 봄, 가을 두차례씩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모임을 갖고 있다.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4.28	동아일보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외과 조용관 주임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위질환 분야
4.28	경인일보	중앙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건강상식 그것이 궁금하다 모든 암은 유전된다?
4.29	중앙일보	피부와 이은소 교수	25세 이후 여드름은 '화장품'이 주범
4.29	중앙일보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	사스공포 해외여행 어떻게 준비할까
5.3	조선일보	노경식 간호과장	남자 간호사가 뭐 어때서요?
5.5	스포츠서울	안과 안재홍 교수	재미있게 읽는 메디컬상식-인상과화가 모녀
5.8	국민일보	외과 왕희정 교수	질병과 명의 - 간암
5.12	중앙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외과 왕희정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간 질환 분야
5.13	중앙일보	중앙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우리나라 여성 10명중 1명은 빈혈
5.14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첨단진단장치 '과신은 금물'
5.15	중부일보	피부와 이은소 교수	건강관리잡아-건강한피부...자외선 차단부터
5.19	한국일보	가정의학과 손준현 연구과장	검색사이트 주름잡는 온라인 민간박사들
5.19	동아일보	순환기내과 탁승제 교수 흉부외과 이철주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성인 심장 질환
5.20	중앙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産後 살 빼야 평생 날씬
5.20	중앙일보	비뇨기와 안현수 교수	박태균의 음식처방 - 불임
5.20	경인일보	피부와 윤경환 교수	삼푸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 악화된다?
5.21	경향신문	순환기내과 최병일 교수	정기적 검사가 돌연사 막는다
5.22	국민일보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질병과 명의 - 자궁암
5.26	국민일보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자궁용종-자궁내막증 동반발병
5.26	스포츠서울	피부와 이성낙 석좌교수	재미있게 읽는 메디컬상식 - 기미 잔뜩 낀 여신의 얼굴
5.22	국민일보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질병과 명의 - 자궁암
5.26	동아일보	정형외과 전창훈 교수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	신베스트닥터의 건강학 - 척추질환
5.27	중앙일보	예방의학과 조남환 교수	당뇨 노인 67% 치료 안해
5.28	조선일보/한겨레	소아과 이수영 교수	천식 어린이 7.5% 애원동물이 원인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4.30	SBS 뉴스추적	소아과 배기수 교수 정신과 신윤미 교수	아동학대
5.2	KBS9시뉴스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너무 쉽게 열려요
5.2	SBS특집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엄마 힘내세요
5.10	SBS 스타다네이션	흉부외과 소동문 교수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고택균 환아 진로
5.13	KBSTV클리닉	피부와 강희영 교수	기미, 주근깨, 오타모반
5.14	KBS뉴스광장	소아과 홍창호 교수	청소년기의 여성형 유방
5.20	KBS 생로병사의 비밀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녹차,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없앤다
5.23	i-TV 수도권뉴스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자궁내 폴립, 자궁내막증 의심
5.24	YTN뉴스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잡은 하혈 불임위험
5.27	KBS 뉴스광장 KBS 930뉴스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자궁내 물혹, 자궁내막증 의심

故 김현만 교수 가족을 위한 장학금 모금

내과부는故김현만 교수의 가족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인 2명의 딸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장학금 모금 운동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일시불 혹은 정기적 후원도 가능하다.

■ 제일은행 692-20-174717

예금주 최병일(김현만 장학위원회)

■ 문의 : 내분비대사내과 신윤선 간호사
(031-219-5120)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어떤 병인가요?



Q 형부가 낮에 무리하게 운동을 한 후 저녁까지 계속 심장이 뜨겁고 찌릿했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아파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발작성상심실성빈맥이라고 합니다.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의하신 분의 질병은 부정맥의 일환인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생각됩니다. 이 질환은 심장에 이상 전도회로의 형성으로 평소 정상박동을 보이다가 가끔씩 발작적으로 심한 빈맥을 유발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빈맥, 발작성 심계항진, 흉통 때로는 드물게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치료는 빈맥의 발생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이상 전도회로를 찾아 제거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으면 95%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일단 순환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의하여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정맥의 정확한 진단과 이상회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전기생리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전일 입원하여 양측 대퇴부의 국소마취하에 가나다관 도관을 삽입하고 이 도관을 통해 전극도자가 삽입되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기생리검사를 통해 확실한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진단과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르나 약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시술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 최 소 연 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

순환기내과 외래 031-219-5717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중인데, 소변이 노랗고 체중이 자꾸 줄어요

Q 류마티스 관절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위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은 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보여 치료를 시작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소변색이 많이 노랗고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저녁이 되면 어지럽고 호흡이 가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세들이 약의 부작용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A 소변의 색깔이 노란 것은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몸의 다른 이상 때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달이 있으면 피부나 눈동자 부위가 노랗게 변할 수 있으므로 살펴보도록 하시고 가령 황달이 있다면 간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부나 눈동자가 정상이면 소변만 노랗다면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붓고 체중이 늘는 것은 관절염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하면 일반적으로 체중이 늘게 됩니다. 물론 관절염에 쓰는 약의 일부에서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좋아지면 관절염 약을 줄여 나가야 하겠지요. 자꾸 허기가 지고 식욕이 당기는 것은 약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현재 드시는 약을 드시고 추후에 약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증상도 약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워낙 흔한 증상이므로 약의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호흡이 가쁜 증상은 약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상태에 따라 흉부 X선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겠습니다.

〈 서 창 희 교수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외래 031-219-5902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건강 Q & A / 잘못된 의학상식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게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2-721)
· 이메일 apr@ajou.ac.kr



발 모양과 신발

운동화나 신발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내 발에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것이다.

단순히 발길이를 숫자로 맞추는 것 외에도 내 발의 모양과 특성을 잘 알고 맞추면, 활동할 때 편안하여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나아가 피로와 부상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패션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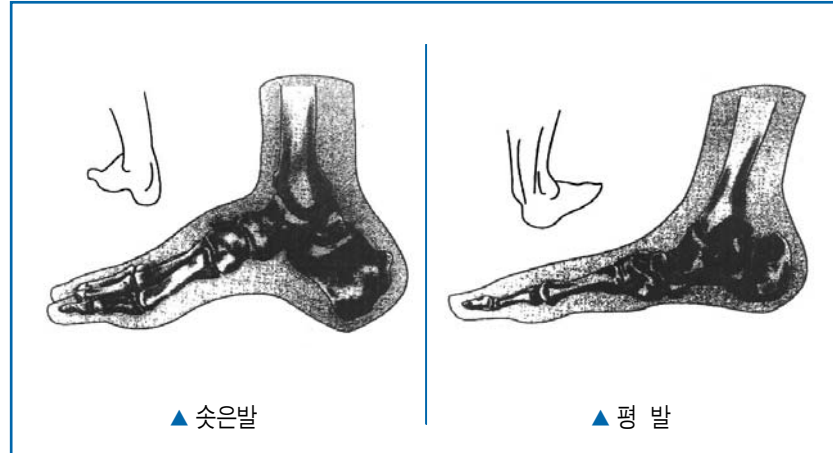
볼이 좁고 뚜껑이 납작한 신발은 보기에 아무리 멋있어도 발을 고문하는 기구이다. 이런 신발을 장기간 신으면 몇가지 문제가 생긴다.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고, 엄지발가락으로 가는 마디가 점점 튀어나오면서 아프고, 다른 발가락은 꼬부라지고, 때론 발톱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발바닥에 신경종이 생겨 저리게 된다.

평발과 숯은발

통계에 따르면 일반 대중의 네사람 중 한사람은 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크게 구분하여 평발과 숯은발이 있고, 내 발이 어느쪽에 더 가까운가에 따라 신발 모양도 달라지게 된다. 평발의 경우 발의 이취를 받쳐주는 깔창이 들어간 신발이 좋고, 숯은발의 경우 쿠션이 있는 부드러운 곡선의 신발이 좋다.

앞발바닥 통증

「중족골통」이라고 하는 발바닥 앞부위의 통증은 그 부위에 동그란 조약돌 같은 굳은살을 동반하는 수가 많다. 그 부분에 압력이 쏠리므로 비교적 볼이 넓은 신발이 좋으며 굳은살에 압력을 해소해 주는 작은 패드가 있는 깔창을 대고 신으면 발이 편안하다.



김 현 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신발을 고를 때는 단순히 발길이를 숫자로 맞추는 것 외에도 내 발의 모양과 특성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괜찮지요?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괜찮지요?」
역류성 후두염과 성대부종으로 벌써 1년을 넘게 단골처럼 다니는 환자가 가끔씩 묻는 질문이다.

내원할 때마다 「약은 잘 드시지요?」라고 물으면 자신있는 표정을 짓다가도 술, 담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멧쩍은 표정을 하고 머리를 만지며 껴잡고 말씀하시고 나가신다.

이비인후과의 두경부클리닉을 찾는 환자 중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환자군이 있다면 역류성 후두염과 구강암, 인두암 등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환자들이다. 이러한 질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술과 담배이다.

담배의 경우 남자의 흡연율이 한 때 약 70%에 육박해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였지만 지속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금연운동, 흡연장소에 대한 제한 등의 노력에 의해 흡연자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술에 대한 위해성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듯하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술을 권하는 분위기이고 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해 무척 관대해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며 실수하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로 취급한다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술도 잘 먹으면 약!」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술은 안전한 것일까? 실제로 소량의 알콜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고 포도주는 포도껍질에 존재하는 물질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적당량을 지키며 술을 마신다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질환에 더 좋은 치료는 있는데 굳이 술이 치료효과가 있다고 해서 마신다는 것은 술 마시는 사람들의 합리화가 아닐까?

목의 이물감과 불편감, 음성변성이 있어 내원하는 환자 가운데에는 많은 환자에서 역류성 후두염과 성대부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원인중에도 술과 담배가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술은 식도 상부의 괄약근 작용을 방해하여 소화액과 위액의 역류를 조장하고 술 자체의 직접적인 자극효과로 부종을 유발하고 흔히 음성과용을 초래



하여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류성 후두염과 관련한 만성염증이 후두암과 하인두암과 관련있다는 연구도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강암의 경우에도 흡연에 대한 위험성에 비해 음주의 위해성은 다소 가려진 듯하나 실제로는 술이 담배만큼이나 해로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자나 음주자인 경우 정상보다 암발생이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술과 담배를 함께할 경우 위험도가 15배로 증가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구강암인 경우에는 흡연보다 음주가 더 위험하다는 보고도 있다.

과음이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영양장애 등 다양한 내과적 질환을 일으키는 것 못지않게 이비인후과의 각종 질환에서도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술에 대한 막연한 애정과 관용에 대해 이제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김 철 호 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술과 담배를 함께할 경우 암발생 위험도가 15배로 증가하며 구강암인 경우에는 흡연보다 음주가 더 위험하다는 보고도 있다.

Coming soon...Upgrade 오산 서울병원!!



지역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오산 서울병원

수경의료재단 오산 서울병원은 1985년 8월 28일 구 오산기독병원을 이어받아 현재 이름으로 개원하였다.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현재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에 앞장서 온 지 18년째가 되는 오산·화성 일대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오산 서울병원은 「언제나 지역주민의 행복이 먼저입니다」라는 설립 이념 아래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항상 변화하고 개선하는 모습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언제나 환자와 함께

오산 서울병원은 인근 700여 산업체와의 공장·산재 계약으로 우수 산업인력의 건강을 도맡아 옴으로써 산업보건증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암환자들을 위하여 호스피스 개념의 치료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만성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특히나 행려병자도 치료해 줌으로써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기피하고 꺼려하는 일 없이 항상 환자와 함께 한다는 진정한 병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첨단 의료장비와 한층 젊어진 의료진

2003년 4월20일부터는 최신형 자기공명영상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MRI를 위해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첨단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FULL PACS)의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은 물론 진료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층 젊고 유능한 의료진을 대폭 보강하여 좀 더 의욕적으로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아주대병원과 함께 경기남부지역의 보건에 매진

오산 서울병원은 2002년 2월 아주대학교병원의 협력병원 체결사업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손을 잡은 60여개 병원 중 하나로서 앞으로 인근 위성단지의 확대에 인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그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 서울병원은 현재 리모델링과 첨단 기기도입을 추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병원업계도 서비스 경쟁에서 뒤쳐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분기별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성공적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부문의 업그레이드 및 첨단 장비도입으로 인한 장비 부문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정립 노력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오산 서울병원의 발전해 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 보도록 하자.

김 영 배 팀장 / QI팀

류마티스 관절염

손발의 부자유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린 르노와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던 인상파 화가 르노와르

미술강의를 듣거나 미술 박물관을 방문해 본 사람 중 르노와르의 작품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 르노와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가장 위대한 프랑스 화가

가난한 양복점 아들로 태어난 르노와르는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여, 20세에 프랑스 최고의 국립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는 밝고 환한 색채의 풍경화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르노와르만큼 고객의 호감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 화가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모네, 시슬리, 피사로, 드가, 세잔 등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하며 그의 예술적 감각은 더욱 성숙되었고, 그가 제작한 나체화는 재정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었으며 1900년에는 훈장도 받아 가장 위대한 프랑스 화가의 한 사람이라는 명예까지도 거머쥐게 되었다.



붓을 팔에 묶고 작품활동을 계속

하지만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젊은 화가지망생 시절 이후 더 이상의 시련은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도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면서 행복 속에만 머물 수가 없게 되었다. 날이 차가워지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흐

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는 그를 더욱 괴롭게 했다.

병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손으로 붓을 잡을 수 없게 되었으나 그는 붓을 팔에 묶어 고정시키고 팔레트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서 놀라운 속도로 계속 그림을 그렸다. 1904년에 르노와르는 46kg의 마른 체형으로 간신히 앓을 수 있었으며, 몇 년 후엔 목발도 사용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여러 차례의 발작으로 인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손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 발처럼 변형이 심해졌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르노와르가 앓았던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전신성 염증질환으로, 대칭성, 다발성의 관절염과 이에 따른 관절의 손상 및 변형이 야기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경과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지는 경우를 반복하게 된다. 르노와르와 같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가 불량하여 관절기능의 장애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 병의 예방법이나 획기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약물이 개발되어 과거에 비해 대단히 향상된 치료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단 관절조직의 파괴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 진행을 억제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엔 인생의 아름다움만 남아

손발이 자유롭지 못해도 마지막까지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르노와르는 평생 6,000점의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그림 속에는 「그림이란 즐겁고 아름다운 유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르노와르의 말처럼, 괴로움이나 슬픔의 흔적 없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몸짓만이 깃들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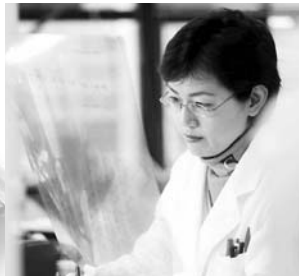
서 유 진 교수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학교실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9명	88,250,000원	132,209,800원
누계	289명	969,368,121원	812,697,32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고혜숙	500,000	교학팀
병원장 지인	50,000,000	
병원장 지인	10,000,000	
병원장 지인	20,000,000	
아주플라워	1,000,000	
유영창	3,000,000	의학부 2학년 유기상 학부모
정병선	100,000	의학부 3학년 정주양 학부모
장영주	1,200,000	의과학연구소
정진희	400,000	기획팀
정해근	50,000	총무팀
최영	2,000,000	행정부원장
분납 4, 5월분	46,060,000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입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가나다순)
2003.4.15~2003.5.27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219-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5752	이철주	5749	금	금	성인심장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목	화	폐·식도의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김정태	5750	토*	화,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토요일은 격주진료	★
	강준규	5750	토*	수, 목	심장외과, 일반흉부질환 *토요일은 격주진료	★
정형외 과 5545	강신영	5544		월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신경외 과 5664	김현정	5542	화, 토	수, 목,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성형외 과 5614	신용삼	5663	월, 수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계적 치료	
	김세혁		토	수, 금	뇌종양, 외상	
	박명철	5611	월, 수, 금	월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산부인 과 5597	정재호	5612	해외연수중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화, 목, 토	화	수부성형,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안과 5673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
	양정인	5593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및 복강경	★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이비인 후과 5747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산과, 부인과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월(예약), 수(예약)	망막, 초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0	월, 금	화	각막, 녹내장, 엑시머·라식수술	
	장윤희	5672	토	월, 목	사시, 소아안과	
흉부 외과 5752	문상호	5671	화, 토	금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일반진료	5671	월-토	월-금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안정클리닉)	월, 목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장연훈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이비인 후과 5747	김철호	5746	수, 목(음성클리닉)	월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질환	
	김현준	5746	토	화,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최호석		화, 금	목	부비동염, 두경부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기 과 5585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최민규		토	화, 목	요로결석, 남성과학	
재활 의학 과 5802	일반진료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치방 외과 5884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비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핵심 외과 5939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유종, 경위방사선치료)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가정 의학 과 5959	이경종	5645		화		
	박재범	5644		목		★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생년기	
	박새별	5957	화	목	여성생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치과 586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신상호	5958	목		비만	
	손중천	5958	화, 토	수, 목	갱년기, 금연	
	정유지		금	월		
	일반진료		월-금	월-금		
치과 5869	항병남	5869	월, 화*, 목*, 금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
	고석민	5869	화, 수	월, 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
	이정근	5869	해외연수중		재진환자만 가능	★
일반진료		월-토	월-금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료수가 과대로 진료료 합니다.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아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 과 6001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운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한빛은행) → 세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
 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